



## 도심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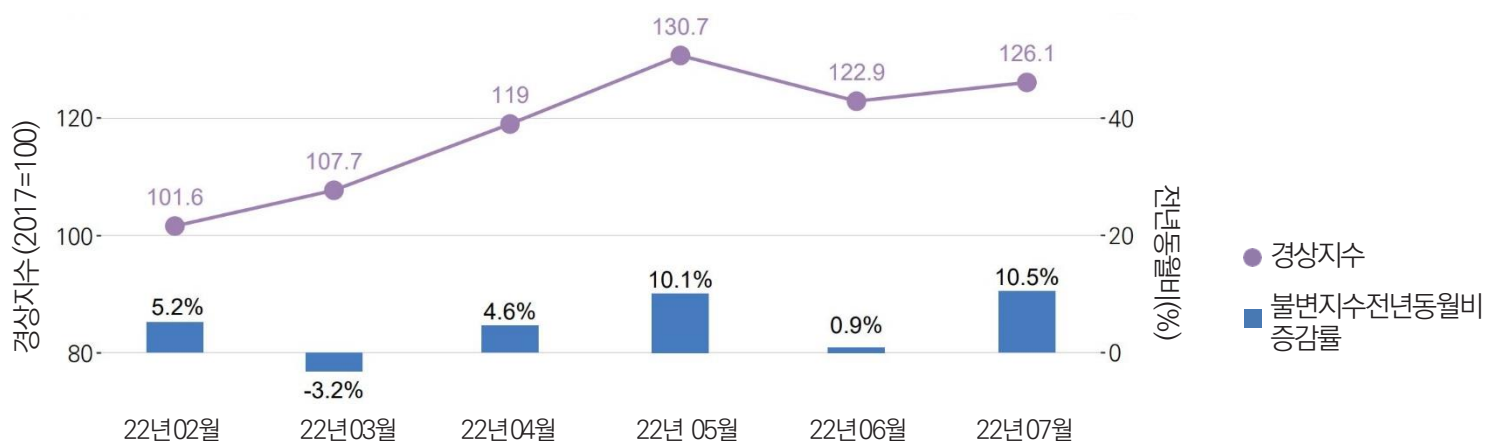
### •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10.5% 상승.

- 전년동월대비 +10.5% = 소매업의 기여도 -3.9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14.4%p  
(각 업종별 기여도 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  
※ 관련 설명은 부록의 7.1 여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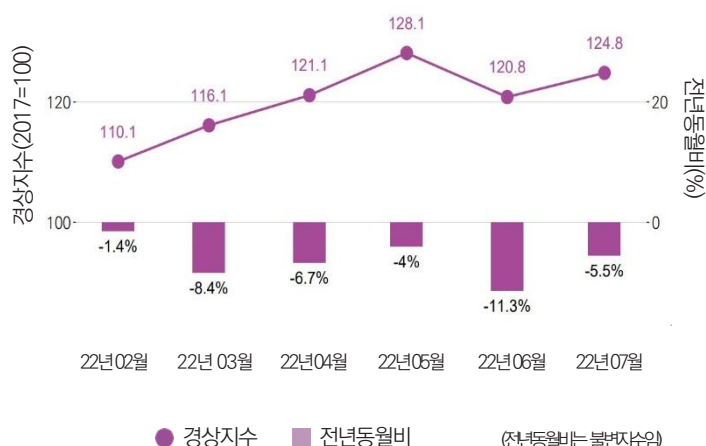
### 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5.5% 하락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49.1% 상승.

- 도심권 소매업은 전월 하락했던 종합소매(6월 -2.3% ⇨ 7월 3.5%), 기타상품(6월 -0.9% ⇨ 7월 2.9%), 의복·섬유·신발(6월 -46.6% ⇨ 7월 -30.1%), 연료(6월 -18.4% ⇨ 7월 -10.9%), 무점포소매(6월 -12.4% ⇨ 7월 -9.5%) 등의 업종이 증가세로 전환하거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기타가정용품(63.2%), 문화·오락·여가(8.6%), 음식료품(5.5%) 등의 증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 권역 중 유일하게 6개월 연속 소매업 소비경기지수 하락세 지속. 특히 서울 권역 중 유일하게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무점포소매(-9.5%)가 8개월 연속으로 하락
- 7월 도심권 소매업은 기타가정용품, 문화·오락·여가, 음식료품, 종합소매, 기타상품 등의 순으로 소비 증가
- 반면 의복·섬유·신발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연료, 무점포소매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- 도심권은 숙박·음식점업이 상승하면서 오름폭은 (전월보다) 확대. 숙박업(65.3%), 음식점(50.6%), 주점·커피전문점(23.3%) 등의 모든 업종이 크게 상승
- 7월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, 음식점, 주점·커피전문점 순으로 소비 증가

#### 도심권 소비경기지수



#### 도심권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#### 도심권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